

영림원소프트랩, '상상은 크게, 개발은 빠르게!'

로우코드 모바일 앱 개발 공모전 성료

- ▶ 로우코드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플렉스튜디오' 활용하여 '누군가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앱'을 주제로 3개월 간 진행
- ▶ 총 3,000만원 규모의 상금 수여

[2024-11-08] 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대표이사 권영범, 060850)이 지난 7일 '상상은 크게, 개발은 빠르게' 로우코드 모바일 앱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영림원소프트랩(대표이사 권영범)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상상은 크게, 개발은 빠르게!' 로우코드 모바일 앱 개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디넷코리아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33건의 혁신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출품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군가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앱'을 주제로, 영림원소프트랩의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플렉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플렉스튜디오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기능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앱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선보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후원한 영예의 대상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재활용 앱 '리브업'을 개발한 투그린(ToGreen)팀에게 돌아갔다. 리브업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중고 물품을 거래하고, 재활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여한 최우수상은 OpenAI API 기반의 GPT 챗봇 '디시전 메이트 (Decision Mate)'를 개발한 솔비(Solvee) 팀이 수상했다. 디시전 메이트는 사용자의 고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앱이다. 지디넷코리아가 수여한 우수상은 한국을 여행하는 내·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앱 '푸드델(Foodel)'을 개발한 레이저(Laser)팀이 차지했다. 영림원소프트랩이 수여한 아카데미 상은 네컷사진의 불편함을 해결한 '폴리오' 앱을 개발한 팀폴리오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멧쟁이사자처럼에서 각 2팀씩 총 8팀에게 장려상을 후원했다.

수상 팀에게는 총 3,0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대상 팀에게는 1,000만원, 최우수상 팀에게는 500만원, 우수상과 아카데미상 팀에게는 각 300만원, 장려상 8개 팀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

금이 전달되었다.

권오림 플렉스튜디오팀 사업총괄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로우코드 플랫폼의 잠재력과 개발자들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플렉스튜디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혁신적인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와 플렉스튜디오 권오림 사업총괄, 공모전 수상자들 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